

2025 07
통권 303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산북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김옥련 효임 골롬바
(옥산 본당 청리공소 선교사)

언제 나
기뻐 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하십시오.

데살로니카 1서 5장 16~18절

성경 말씀은 올진 본당 죽변 공소의 장수현 루치아 자매님께서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서한을 정성스럽게 필사하신 자매님께서서는 평소 많이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인간적 원인들

13. 이러한 세계적인 기후 현상들과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의 급속한 증가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기후 학자들은 이 상관관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후 학자들만이 이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는 경제 강국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최대의 이윤을 얻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14. 명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얽잡고 억지스러운 의견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변화가 유례없이 빨라지는 이유가, 최근 두 세기 동안 자연에 대한 고삐 풀린 인간의 개입과 연관된 거대한 성장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산 분화 등과 같은 전형적으로 온난화를 초래하는 자연 요소들만으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의 비율과 속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온실가스 증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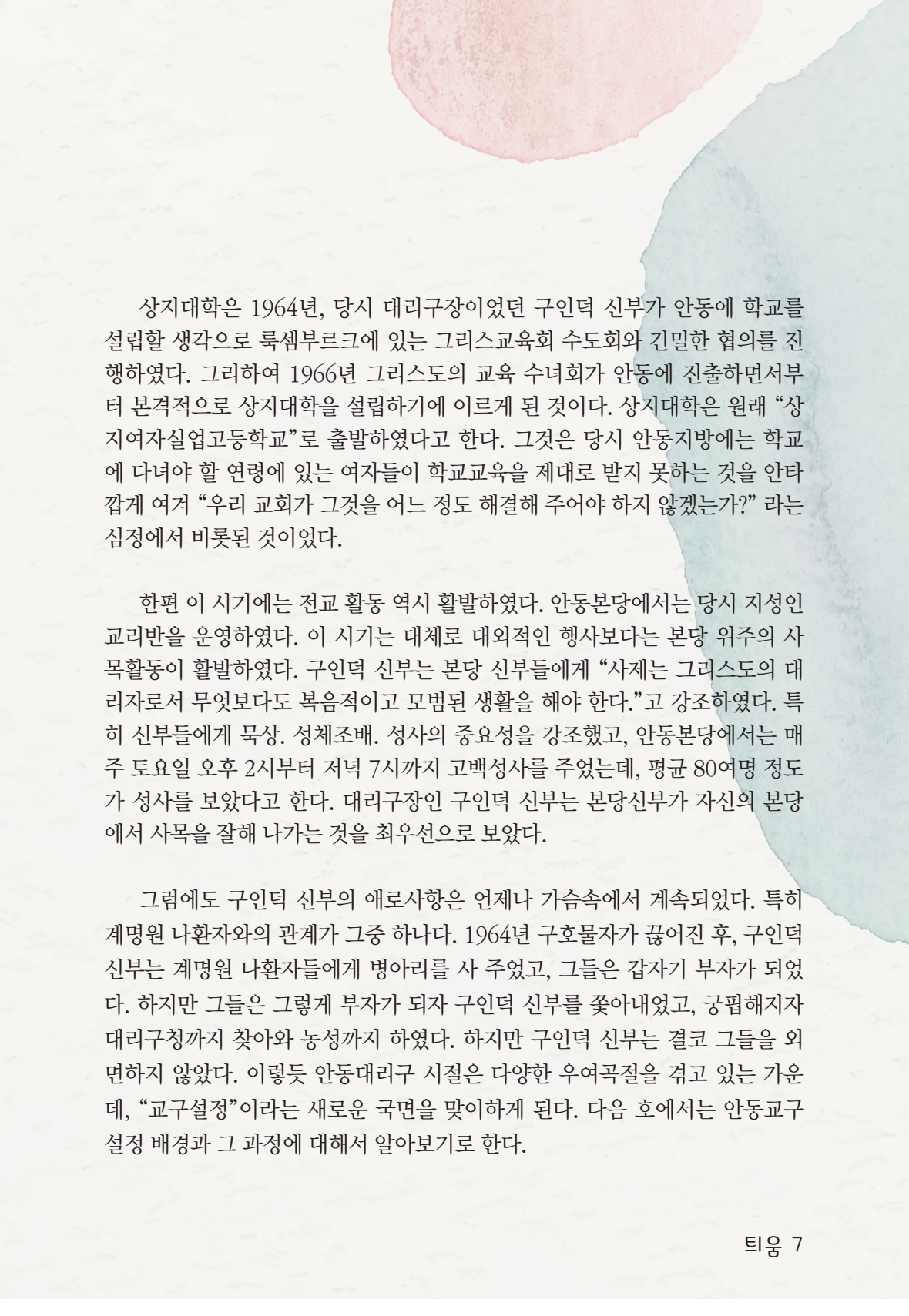
“안동감목대리구에서 안동자치교구로”(4)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안동감목대리구 두 번째 감목대리 구인덕 신부는 자선사업뿐 아니라 대리구 사목에 대해서도 열과 성을 다 쏟아부었다. 구인덕 신부는 성소자 모임, 신심 활동, 상지대학 설립, 꾸준한 전교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구인덕 신부가 안동감목대리구장으로 자리한 이후, 대구교구는 선목 소신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안동에서도 성소자 모임을 가졌지만 교우들이나 일선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사제단의 호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해서 당시 교회 상황에서 볼 때, 성소 개발은 시급한 문제였는데도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정호경(루도비코, 1941-2012) 신부는 박 로제(1927-1983) 신부가 신학교에 추천했지만, 류강하(베드로, 1939-2010) 신부는 누가 추천하여 신학교에 보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구인덕 신부의 전언이었다. 그만큼 성소자를 발굴하여 신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리구내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심 활동으로는 당시 가장 먼저 레지오마리아가 영주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21세기인 오늘날로 볼 때, 상주지역에서 레지오마리아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상주지역이 여전히 왜관감목대리구 소속 아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안동감목대리구로서는 영주지역이 가장 빨리 레지오마리아가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 영주지역의 레지오마리아는 꾸리아까지 설립될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레지오마리아를 도입한 것은 영주지역의 각 본당 주임신부들에 의해서다. 안동에서는 구인덕 신부가 남녀 신자를 대상으로하여 류한상 베드로 회장을 주축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구 내 모든 본당에서의 레지오마리아 활동에 대해서는 대리구 내 사제단의 모임을 통하여 의견 합의를 보고 지도 신부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상지대학은 1964년, 당시 대리구장이었던 구인덕 신부가 안동에 학교를 설립할 생각으로 룩셈부르크에 있는 그리스교육회 수도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가 안동에 진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지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지대학은 원래 “상지여자실업고등학교”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당시 안동지방에는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에 있는 여자들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전교 활동 역시 활발하였다. 안동본당에서는 당시 지성인 교리반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는 대체로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본당 위주의 사목활동이 활발하였다. 구인덕 신부는 본당 신부들에게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무엇보다도 복음적이고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부들에게 묵상, 성체조배, 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안동본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고백성사를 주었는데, 평균 80여명 정도가 성사를 보았다고 한다. 대리구장인 구인덕 신부는 본당신부가 자신의 본당에서 사목을 잘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구인덕 신부의 애로사항은 언제나 가슴속에서 계속되었다. 특히 계명원 나환자와의 관계가 그중 하나다. 1964년 구호물자가 끊어진 후, 구인덕 신부는 계명원 나환자들에게 병아리를 사 주었고, 그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자 구인덕 신부를 쫓아내었고, 궁핍해지자 대리구청까지 찾아와 농성까지 하였다. 하지만 구인덕 신부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동대리구 시절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구설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안동교구 설정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 청년, 공동체, 그리고 신앙

안동교구 청년연합회 총무
용상동 본당 조후성 멜라니아

지난 여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교회에 젊은이가 부족하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종교는 점점 젊은이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 어쩌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지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점점 젊은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어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불안정한 미래와 씨름하고, 주말마저 일이나 과제로 가득한 나날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성당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신앙’이라는 작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때때로 “청년들이 모여봐야 술이나 마시지” 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애정 없이 멸찍이 서 있는 이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말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엔, 부족함도, 실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가 꼭 필요할까?”라는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자, 일어나 가자.”
(요한 14, 27-31 참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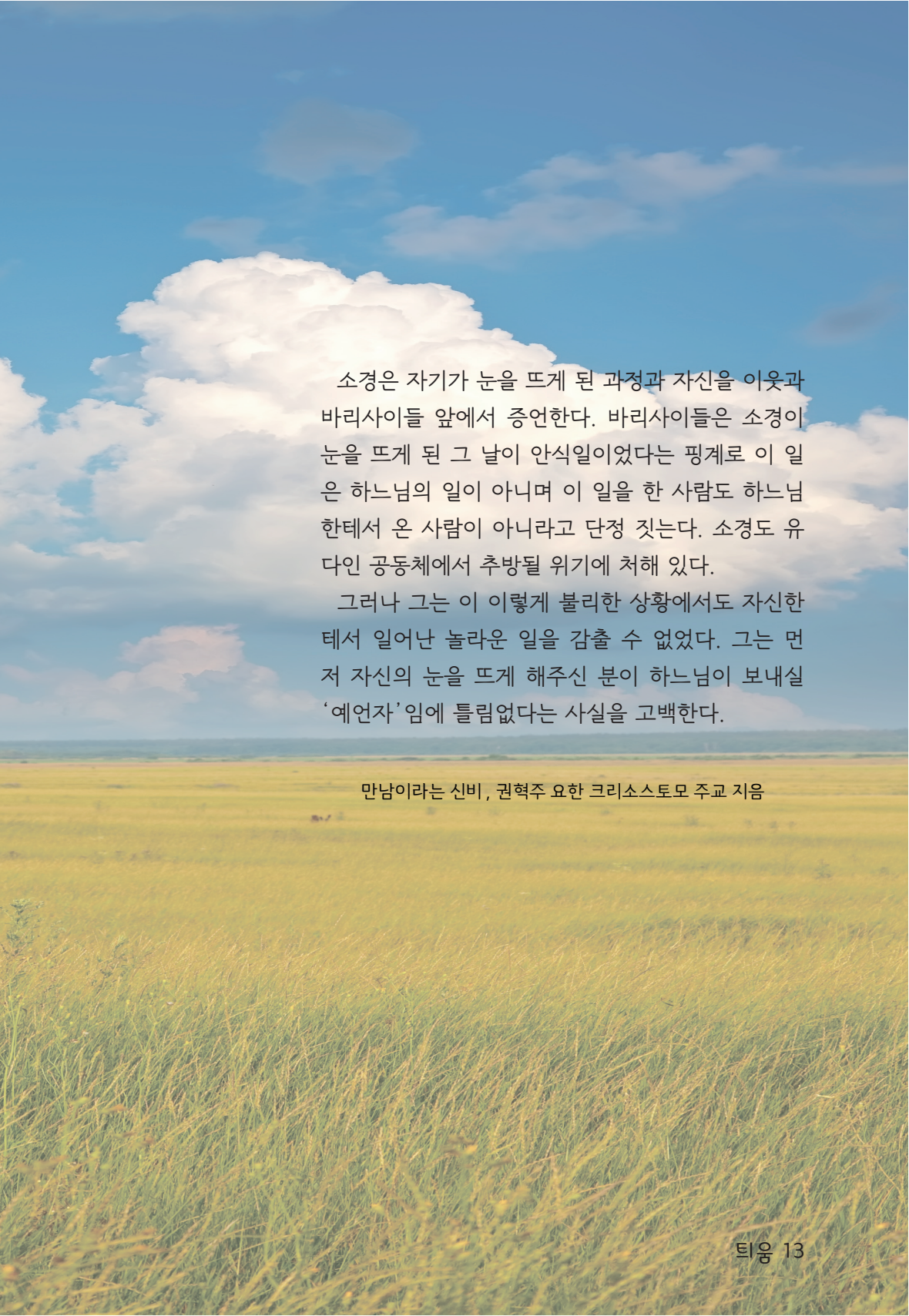
만성피로 증후군은 일상이 너무 힘들고 쉬어도 피로 회복이 되지 않고 기운이 축 쳐져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 뭘 해도 의욕이 없고 휴가를 내어 폭 쉬더라도 더 이상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 알아야 한다. 무기력증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육체적으로 체력이 고갈 된 번 아웃(Burn Out) 상태와 육체적 에너지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기력증이다. 번 아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어떤 일에 의욕적으로 몰두하던 사람이 그 일에 치여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주로 번 아웃을 말하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에서 손을 놓고 회복될 때까지 충분하고 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번 아웃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먹거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무기력증은 에너지는 있는데 그것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 지 몰라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빈둥빈둥 허송세월한다. 이런 무기력은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이고 나태하며 일부에서는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삶이 바닥이고 더 이상 낙락으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치료법은 목표 설정과 방향성 찾기다. 먼저 해야 할 쉬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기’나 ‘밥 먹고 난 뒤의 설거지’ 같은 일부터 시작하게 한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나씩 추가 하면서 서서히 몸을 움직여 우울한 기분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일로 확장해나가는 데 욕심 부리지 않고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듯 한 단계 한 단계 디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식으로 천천히 한다. 그러면 에너지는 방향성을 찾아 이동하고 점점 더 활기찬 일상으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의미를 찾아 실행했는데 잠깐 좋아지긴 했지만 또 다시 무기력해질 때이다. 원인은 자신이 찾았던 의미가 무가치한 것(쓸데없는 것)으로 훼손 되거나 노력의 결과로 더 나아지지 않으면 또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원상으로 되돌아가려하는 관성(慣性) 때문이다. 따라서 노력이 곧바로 단기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쉬운 것부터 하면서도 의미는 가급적이면 훼손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다. 무기력증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 밝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바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무기력 상태를 떨치고 일어나기를 간구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기력증에서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격려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소경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과정과 자신을 이웃과 바리사이들 앞에서 증언한다. 바리사이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핑계로 이 일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며 이 일을 한 사람도 하느님 한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다. 소경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한테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느님이 보내실 ‘예언자’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주교 지음

점촌동 본당 산복공소

Q : 산복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저는 2019년 이곳으로 왔습니다. 유아 영세를 받았는데 계속 성당을 못 다녔어요.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마을로 귀향하면서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공소까지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공소 자랑거리는 많습니다. 공소에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귀한 분들이죠. 공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마다 사진을 찍고 원고를 작성해서 공소 알림지를 매월 만들어 배부해주시는 분의 수고로움으로 저희는 공소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형제님은 바쁜 가운데에도 틈나는 대로 공소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깔고 약도 치고 페인트 작업도하며 공소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봉고차를 계속 운전하시며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직분을 맡으신 여러 신자분들의 수고도 말로 할 수 없지요. 자매님들은 늘 식사 준비와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 개개인이 이런저런 불평함 없이 묵묵하게 해주시기에 우리 공소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 2 : 우리 공소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6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공소가 아니라 본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행복한 고민도 했었지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하느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25명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상주하셨을 때는 거동이 불편해서 공소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선교사님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본인 차에 태워 성당에 모셔드렸었지요. 그때 제가 공소 부장을 하면서 본당 신부님께 선교사님이 차량봉사까지 서슴없이 하시니 기쁨같이라도 지원해주십사 청하기도 했었지요. 그만큼 아주 열심히하고 활기가 넘친 공소였습니다.

Q : 공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3 :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 신자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60명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숫자도 줄어들다보니 제 마음이 좀 허전해지더라구요. 제가 공소 승합차를 몰고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당에서만 운행을 하다가 공소 운행을 하였는데 제가 모시고 다녔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점점 공소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4 : 우리 공소는 196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 진갑이 다 지난 건물인데 여름은 무더운 여름이라서, 겨울은 추운 겨울이라서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벽체라든지 건물 자체가 무척 낡았습니다. 실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손볼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노력 봉사로 사과즙을 내어 팔아도 보고, 주일마다 십사일반으로 모금을 하여 800만 원 정도를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소 건물을 수리해서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75항-181항

- 175항** 1-1 환경 오염의 감소와 가난한 국가와 ()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 더욱 책임 있는 세계적 호응이 필요합니다.
1-2 전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군비 축소와 식량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을 규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참된 세계적()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 176항** 환경과 경제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이상 국가 간의 ()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역의 정책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177항** ()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그 미래를 설계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와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에는 법률이 있으며 이는 공동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 규정을 마련합니다.
- 178항** () 위대함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장기적 공동선을 배려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 179항** 때때로 부패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치적 결정에는 ()들의 ()이 필요합니다. 비정부 기구와 중간 집단을 통해 사회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더욱 엄격한 정책과 절차와 통제 방식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합니다.
- 180항** ()의 정치 활동은 소비의 변화,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경제의 발전, 특정 생물종의 보호, 그리고 윤작을 통한 다품종 농업 계획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181항** 1-1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 내에 뚜렷한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민과 ()의 압력이 없다면 당국은 언제나 개입을 꺼릴 것입니다.
1-2 건전한 정책이 우선되어 ()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압력과 타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7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차	클	래	스	윙	보	라	압
민	이	국	위	스	정	력	수
사	소	민	열	정	치	적	제
신	송	인	지	도	권	사	도
혁	관	차	역	역	위	장	개
적	조	이	차	력	의	청	혁
술	너	종	원	자	제	발	달
기	임	렌	시	민	단	체	전

5월 당첨자

강해월 율리아 (하망동 본당)

백영미 소화데레사 (가흥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3 - 동 살리기 4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똥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그것을 자원으로 볼 때 재순환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깁니다. 그 방법이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 안에 톱밥이나 왕겨 또는 볏짚만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전기도 물도 필요 없습니다. 잘 관리하면 병원성 미생물이 사멸할 만큼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텃밭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퇴비를 만들어줍니다. 날씨가 추워 얼지만 앓는다면 빨리 분해되어 몇일 사이에 냄새도 없고 파리나 쥐를 불러들이지 않는 좋은 유기 거름으로 변합니다. 기술도 필요 없고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질 좋은 퇴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퇴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유기순환 생명 농업이 가능하며, 건강한 밥상 또한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 되어야 할 것은 똥이 아니라, 우리의 낭비적이고 내던져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1. 물먹는 하마인 수세식 화장실

사람 한 명이 하루에 한 번 배설할 때 나오는 똥은 대략 1kg이고, 오줌은 약 6번에 1.5~2.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똥과 오줌을 씻어내는 데 필요한 수세식 변기의 물 양은 한번에 9리터(절수형 변기는 6리터)나 됩니다. 하루에 일곱 번만 화장실을 간다 해도 한 사람의 똥과 오줌을 씻어내는데 드는 물의 양은 최소 60리터가 넘고 1.8리터 PET병으로 33병이나 됩니다. 수도권 2천 5백만명이 하루에 똥오줌을 내보내기 위해 수세식 화장실에 쓰는 수돗물 양만 해도 225만 톤이나 됩니다. 1년이면 8억 2천만 톤입니다. 금강 상류에 있는 다목적댐인 용담댐의 저수량보다 많은 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화조를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까지 간 똥오줌을 씻어낸 물이 법에 정해

진 산소요구량(BOD) 기준에 맞다고 해서 위생 정화된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희석된 물은 사실 똥오줌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수인성 질병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오수로 변하는 겁니다. 정화조에 남겨진 찌꺼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화학비료로 뒤통수가 된 논과 밭

똥이 양질의 거름으로 변신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염물로 강과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대신에 논과 밭은 화학비료로 뒤통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비료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는 작물 생장을 촉진하는 기적의 비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학비료가 이제는 땅을 죽이는 토양 산성화의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흙이 산성화되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도 산성화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산성화됩니다. 또한 흙이 딱딱하게 굳어 공기 유통이 되지 않고 미생물이 줄어들면서 식물 뿌리가 잘 자랄 수 없게 됩니다. 한 숟가락의 흙 속에는 약 1억 마리의 박테리아와 방선균 2천만 마리, 원생동물 1백만 마리, 조류와 균류 약 20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히 미생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는 그런 미생물이 사라진 죽은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가운데 병원균들은 대개 산성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은 끊임없이 병해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약 중독과 잔류 농약 공포에도 어쩔 수 없이 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화학 농업의 악순환입니다. 화학비료 또한 질소는 70%, 인산 가리는 80% 정도나 흡수되지 못하고 빗물에 씻겨 강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똥을 살해하는 범죄자들인 인간들이 땅을 살해하는 화학비료도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수세식 화장실과 화학비료는 산업화와 근대문명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청하면서 가장 잔인하게 흙과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발명품입니다.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계속 사용해야 하겠으며, 화학비료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가히 이 지구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임이 명확합니다.

남성동 본당 제대 십자가

(1960년대, 가로 24.6cm * 세로 35cm)

이 십자가는 남성동 본당이 설립된 1963년부터 제대에 있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그리스 십자가로(이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의미가 있다고도 한다.), 동으로 조각된 예수님 상이 전면에 있고 밑에 지구를 뜻하는 작은 구와 보다 큰 반구가 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 남성동 본당의 주보가 ‘구세주 예수’이기에 지구에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올려둔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한다. 십자가는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윗면에 금색 칠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벗겨진 상태이다. 예수님 형상은 단순화 하였고 머리에 가시관과 가슴의 창 자국이 열게 드러난다. 1964년 민공도 알로시오 신부님 때는 감실 위에, 1972년 도광주 요한 신부님 때는 제대 위에 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74년 경 제대 위쪽 천장에 십자가를 달면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김옥련 효임 골롬바
옥산 청리 공소 선교사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련 효임 골롬바입니다. 상주 옥산 청리 공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례

천주교 신자인 큰어머니의 소개로 신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공소여서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힘들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공소를 바라보며 나도 저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신자인 시부모님의 권유로 1984년도에 아이들과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의 길

세례를 받고 반장으로, 레지오 단원으로, 또 레지오 단장으로 신명나게 활동하던 중 신부님께서 교리교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교리 공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 열망에 2000년도에 가톨릭 교리신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꿀처럼 다디단 말씀으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리신학원에는 공소 실습을 해야 선교사 자격을 준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져 자유로웠지만, 저는 공소에 대한 꿈이 있어서 실습 공고가 붙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마침 그 신청한 공소가 시댁 마을에 있어서 방학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때 공소 실습자들의 피정을 지도해 주시던 분들의 모임이 지금의 향주 삼덕 선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안동교구와의 인연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고 2003년부터 군종교구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정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안동교구로 내려오라며 꾸준하게 요청하셔서 14년간 있었던 군종 교구를 떠나 2017년에 안동교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해 로마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령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하여 기도로 응답을 구했습니다. 파리 외방 선교회를 방문했는데 당시 파견될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와 인사를 드리며 일명 ‘돌아오지 않는 길’이라 불리는 그곳에 한글과 한문으로 쓰여진 순교자 현양비를 보며 ‘그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가는데 어딘들 못가랴’ 하는 용기가 확 생겨났어요. 또 안동교구는 가난한 농촌 교구이니 가난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더 용기가 났습니다.

보람

보통 한 본당에서 3년에서 길면 7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벌써 5년을 보냈네요. 그동안 레지오가 한 팀이 더 늘어났고 어린이 영어 성경반이 개설되어 젊은 부부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또 젊은 이들의 모임도 작년 9월부터 시작되어 활성화되었습니다. 신부님과 공소 회장님의 지원으로 점점 활력이 넘쳐나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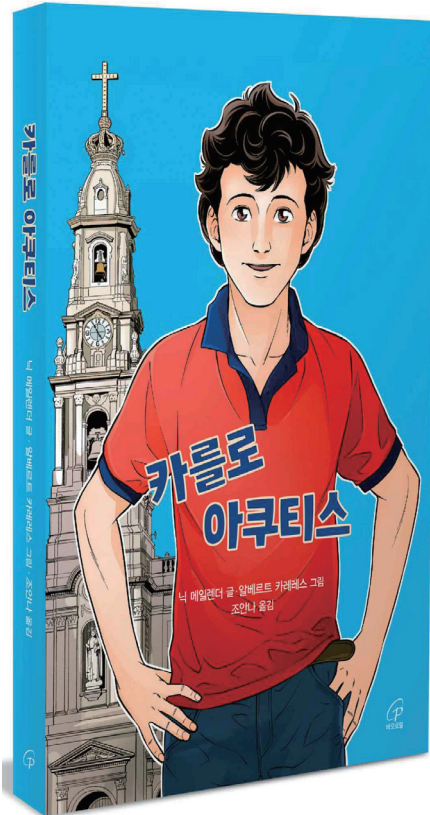
황금률

저는 마태오 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줍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봉사는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해 주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닉 메일렌더 글 | 알베르트 카레레스 그림 | 조안나 율김 | 200쪽 | 13,000원



여느 아이들처럼 스포츠와 동물, 컴퓨터 게임과 영화를 좋아했으나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과 마리아 발현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가톨릭교회를 알린 주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1991-2006) 성인의 삶과 신앙을 생생하게 그린 만화 전기.

“내 삶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사랑과 아픔의 “등급”?

박석일 베드로 신부
영양 본당 주임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제가 보기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르냐고 물으면, 사장님은 ‘이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답해줍니다.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그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고, 품질이 어떤지를 나눠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품이 등급을 가지고 있고 성적과 위생, 신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는 건 무언가를 합리적으로 평가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평가가 내려지면, 이후 결정과 활동이 편리해집니다. 합리성, 편리성의 기준에서 볼 때, 등급을 매기는 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난 3월 우리 교구 지역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2월 사제 인사로 피해지역 중 하나인 영양으로 부임 받아, 교우분들과 지역민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공소 교우분들께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에 수녀님들과 함께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피해 계시던 교우분들과 지역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만큼 피해받았는가 이전에, 모두가 삶의 터전 가까이에 다가오는 불을 보고 대피하며, 놀랐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점”입니다.

지난 경험을 돌아보며 아픔과 상처에는 등급이 없어야 한다는 묵상을 해 봅니다. 등급을 매기고 나누는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아픔과 상처에도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반대로 나를 향한 이웃의 사랑에도 등급을 매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아픔에는 등급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웃의 아픔에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는 슬퍼하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별일 아닌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향한 이웃의 사랑에 등급을 매긴다면, “겨우 이거 가지고 생색내네”, “나는 힘든 데 도움이 안 되네”라며 나를 향한 이웃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에 감사하지 못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은 합리성, 편리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합리성과 편리성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합리성과 편리성을 따졌더라면,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볼 때, 비효율적이고, 손해인 줄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보여주신 마음과 정성 또한 효율성을 지우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산불 피해를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아픔 중에 머무는 교우분들께서도 교우분들을 향하는 사랑을 바라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길 기도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성소(聖召)에 관한 말씀 (2025년 5월 11일 ‘삼종기도’ 강론 중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주일입니다!

로마 주교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 제4주일, 곧 착한 목자 주일인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미사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즉 예수님께서 당신 양들을 알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로서 드러나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요한 10,27 참조)고 하십니다. 교황 대 그레고리오 성인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듯이, 하느님의 백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분(주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느님의 온 백성이 다함께 성소자들을 위해, 특히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에 부름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는 성소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성소의 여정에서 환대, 경청, 격려를 받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너그럽게 헌신하는 믿음직한 모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곧 젊은이들을 환대하고 동행하라는 초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읍시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목자가 되어 사랑
과 진리 안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걸
아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젊
은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
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주 그리스도
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Leo P.P. XIV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온 삶을 사신 동정 성모님,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해 주소서.

※7월 신학교에서 온 편지는 「교황님이 전하는 성소 말씀」입니다.



2025년 대신학생 부모 모임

5월 31일(토) - 6월 1일(주일) 교구청과 우곡성지에서 교구 대신학생 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의 주례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류한빈 신부님(춘양 본당 주임)의 강의를 통해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과 신학생들은 위하여 기도합시다
 재바우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신 신학생들을
 살리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사제와 ~~취가~~ 하신
 하느님 말씀에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으실 줄 믿



알 림

1. 2025년 예비신학생 여름 캠프

일 자 : 7월 19일(토) - 20일(주일)

장 소 : 북면성당, 춘양성당

2. 2026학년도 대신학교 지원자 모임

대 상 : 7월 26일(토)

장 소 : 교구청

3.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4.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타교구 개인		이호숙		정옥남	
가 은	392,000	권양일	10,000	장준영	10,000	최은정	10,000
계 림 동	481,000	김건화	10,000	정경자	20,000	최인숙	10,000
공 검	114,000	김경란	10,000	정재식	50,000	현희성	10,000
모 전 동	667,000	김경란	10,000	정태진	20,000	황재혜	5,000
목 성 동	1,734,000	김경림	5,000	조원준	10,000	라스베가스 한인성당	
문 경	269,000	김경수	50,000	최경희	20,000		
안 계	414,000	김계형	50,000	최영옥	10,000	6,947,418	
옥 산	1,833,000	김근희	5,000	탁인자	30,000	성 분 도 치 과	
울 진	760,000	김길자	50,000	황상호	30,000		
의 성	1,231,500	김순영	100,000	월 모 임 편		100,000	
후 포	241,000	김정은	10,000			안 동 신 협	
교구 내 기타		김현정	20,000	강면식	20,000		
		김혜경	10,000	심재임	40,000	100,000	
김정현 신부	10,000	박승철	10,000	이 길 선 편		은총의 거울 Pr	
백동수 신부	10,000	박종대	10,000				
서동호 신부	20,000	변진의	10,000	강명희	5,000	25,000	
안영배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권순옥	10,000	정의의 거울 Pr	
윤성규 신부	20,000	송은옥	10,000	김중향	5,000		
정양모 신부	100,000	신옥선	10,000	김지은	10,000	20,000	
정철환 신부	10,000	신용찬	50,000	나양수	30,000		
김정란	100,000	안명숙	20,000	박영신	10,000		
박경순	20,000	안안택	10,000	백형숙	10,000		
박보라	10,000	위은숙	10,000	신미란	10,000		
박정렬	10,000	유병현	10,000	양수모	10,000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이길선	10,000		
신동섭	10,000	이임영	50,000	이영섭	20,000		
이가엘	10,000	이정숙	20,000	전정희	5,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자히적때공예, 저를알해서 스모로꿈인 자 되시고 율능의 권 령으신 주님, 무슨일에 누를 붙여 참회합니다.
갖고 싶은 것 가채우고,
먹고 싶은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물이 끓이지 못, 참 자유는 물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llegible]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